

여주(驪州) 고달사지(高達寺址)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의 소비양상*

한 혜 선**

목 차

- I. 머리말
- II. 건물지 성격에 따른 도자기의 출토 양상
- III. 고달사의 도자기 소비양상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여주 고달사지는 9세기 무렵 창건되어 고려시대에 국가가 관장하는 대찰(大刹)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로, 8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모두 28동에 이르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고달사지 출토 도자기는 다양한 종류와 품질을 갖추고 있어 고려시대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도자기의 조달과 소비양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1세기~13세기에 대규모 사찰과 같이 중요 소비처에서 조달한 자기는 강진과 부안이라는 최고급 생산지 제품은 소량이며, 나머지는 주변에서 제작된 조질의 청자와 백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당시 최고급품 또는 고려에서 생산된 자기를 대체하는 품목으로 인식되었던 소량의 중국자기가 더해지면서 사찰 사용 자기의 구성을 갖추었다. 이러한 자기들은 사찰에서 설행(設行)되는

* 이 논문은 여주시·경기문화재단연구원이 2021년 11월 2일 개최한 <고달사지 발굴조사
의 성과와 향후과제>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韓惠先,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hshan94@hanmail.net
투고일: 2023. 5. 23. 심사완료일: 2023. 6. 9. 게재확정일: 2023. 6.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4..7>

각종 의식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승려들이 참선을 할 때 음다용으로 또는 공양용으로 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한편 승려들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식품의 저장은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많은 선승들이 기거하는 선종사찰은 주방에 해당하는 고원(庫院) 영역이 중시되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고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거기에서 식품 저장용으로 활용된 대형 도기호가 다수 출토되었다. 대형 도기호의 대부분이 저부가 좁은 반면에 어깨가 상당히 넓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약점을 보완하고 저장용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기의 일부 혹은 전체를 땅에 묻어서 사용하였다.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어느 정도 건물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고, 용도면에서 도기와 자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음을 증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핵심어 | 고려, 사찰, 여주, 고달사, 도자기, 소비

I. 머리말

여주(驪州) 고달사지(高達寺址)는 9세기 무렵 창건되어 고려시대에 국가가 관장하는 대찰(大刹)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이다. 현재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역내에 국보와 보물 등이 산재해 있어 높은 위상을 가진 곳이다.¹⁾ 창건은 기록에 의거해 신라 경덕왕 23년(764)으로 알려져 있으며, 9세기 무렵부터 이미 운영되었고 고려 광종대 원종대사(元宗大師) 찬유(璨幽)로 인해 사세를 떨쳤다.²⁾ 원종대사 사후에 광종이 특별히 명을 내려 도봉원·희양원과 함께 삼부동선원(三不動禪院)으로 삼고 977년에 <원종대사혜진탑>을 건립하는 등 고달사는 고려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

1) 이승연, 「신라말~고려시대 선종사원의 배치변화에 관한 연구」, 『韓國考古學報』 96, 한국고고학회, 2015, 189쪽.

2) 한기문, 「고려시대 혜목산 고달사의 위상과 종풍」, 『高達寺址 II』,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778-796쪽; 김용선, 「玄昱·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국중세사학회, 2006, 111-139쪽.

다. 그리고 1101년 대각국사 의천이 입적하자 왕명으로 소집되었던 승려들이 다시 본사(本寺)로 돌아가게 되면서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고달사지는 그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보존 정비를 위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총 8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³⁾ 발굴조사 결과, 지형을 따라 크게 3단의 축대 위에 법당지, 불전지, 승방지, 욕실, 요사채, 누각지, 창고 등 28동에 이르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선종이 도입되던 나말여초 시기의 선종사원은 기존 사원에 건물을 부분적으로 해체 수리해가면서 선원을 개창하였고, 주요 전각은 위계와 기능에 맞게 계속해서 구성이 변하였다.⁴⁾ 따라서 한 건물지가 여러 차례 증수를 거듭하며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층위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는 처음부터 사원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갔던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전체 사역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활용했다는 점을 알려준다. 기존에 알려진 문헌과 발굴조사결과를 통해 고달사지는 모두 6기 4단계에 걸쳐 가람이 변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⁵⁾ 9~10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1~2기 가람, 10세기 중엽~11세기에 해당하는 3기 가람, 12~13세기에 해당하는 4~5기 가람, 14~17세기까지의 6기 가람이다. 이 가운데 3~5기 가람이 조성된 시기가 고달사지의 중심시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시대 사찰 출토 도자기는 유적의 연대를 비정하는 역할에서 확장하여 당시 문화를 이끌어간 집단 중 하나인 사찰의 소비성향을 살펴보는데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출토양상을 통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으며, 형태·구성·품질 등을 통해 어디서 어떻게 조달된 것인지에

3) 경기문화재단연구원, 『高達寺址 IV』, 2016, 10-11쪽.

4)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151쪽.

5)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163-164쪽.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사찰마다 종파에 따른 차이, 지역색, 사세에 의한 경제력의 편차 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⁶⁾ 하지만 단일 사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도자기의 양상을 고찰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도자사 연구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달사지의 10세기 중엽~13세기로 편년되는 3~5기에 해당하는 가람 출토품을 중심으로 도자기의 편년보다는 소비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각 건물지 또는 시설물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출토된 도자기의 양상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출토된 도자기를 자기와 도기로 구분하여 특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건물지 발굴의 특성상 각 건물지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거나 층위가 완벽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고려전기에서 중기까지 활용되었던 단일 유적, 그것도 성격이 명확한 사찰 출토 도기와 자기를 종합해서 고찰한다는 점에 이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건물지 성격에 따른 도자기의 출토 양상⁷⁾

고달사지에서는 건물지의 위치와 규모, 출토유물 등을 통해 법당지, 영당지, 불전지를 비롯해 선승(禪僧)들이 주로 생활하던 영역인 승당지, 고원지, 요사 등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생활영역에서 건물지의 성격을 반영하는 도자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따라서 법당지, 영당지, 불전지를 묶어서 살펴보고 생활영역은 세부 건물지별로 도자기의 출토 양상을 알아보

6) 이종민,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흙으로 빛은 역사』,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4, 97쪽.

7) 이승연,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건축고고학적 의미」, 『고달사지 발굴조사의 성과와 향후과제』, 여주시·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21, 43-53쪽.

도록 하겠다.

1. 법당지와 영당지

법당(法堂)은 주지가 설법하거나 입적하는 장소로, 사역에서 가장 위계가 높으며 기존의 강당이 했던 기능을 계승한 것이다.⁸⁾ 고달사의 초기 법당지는 나-3건물지로, 10세기 중엽~13세기에 사용되었다.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내부에 우물이 있었다. 발굴조사 초기에는 2건물지, 2-1건물지로 불리던 곳이다. 여기에서는 내저원각이 있는 한국식 청자해무리굽완이 출토되었다.

12세기 이후에서는 가-2건물지가 법당으로 활용되었는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방형 건물이다. 분청사기가 출토되어 조선전기까지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발굴조사 초반에는 6건물지로 불렸다. 1차 조사에서는 11세기에 해당하는 청자해무리굽완부터 음각기법으로 화려하게 시문한 청자 잔탁, 청자압출양각초화문화형접시, 청자상감초문매병과 같은 중기에 해당하는 것을 비롯해 후기에 주로 보이는 청자상감운봉문발이 출토되었다. 이후 조사에서는 더욱 다양한 도자가 확인되었다. 주로 청자발, 청자접시, 청자 잔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화형잔탁, 매병 등이 출토되었다. 화형잔탁은 잔좌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전에는 절지문을 음각하여 화려하게 문양을 장식하였고, 규석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한 고급품이다(도 1). 이와 더불어 고려 중기에 중국에서 유입된 경덕진계 청백자를 비롯해 도기매병의 저부편이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에서 출토된 도기구연부편의 대부분은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분청사기와 같이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8) 이승연, 앞의 논문, 2015, 166쪽.



도 1. 청자화형잔탁,
가-2건물지 출토



도 2. 청자향완,
나-9건물지 출토

영당(影堂)은 9~12세기 선종사원에서 육조혜능(六祖惠能)이나 개산조(開山祖), 입적한 고승의 진영(眞影)을 모신 사당(祠堂)이다.⁹⁾ 보고자는 나-9건물지가 <원종대사해진탑비> 인근에 위치하고 화려한 부재들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고달사의 영당지로 추정하였다. 1차 보고서에는 3건물지로 불렀으며, 이때 조사에서 청자향완이 출토되었다(도 2). 이 건물지가 진영을 모신 사당으로 의례가 설해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의례기 중 하나인 향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전(佛殿)은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이다. 고달사에서는 나-1건물지가 중심이 되며, 최소 한 차례의 중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중에 가-2건물지가 법당으로 크게 중창된 시점부터는 나-3건물지가 불전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1건물지는 불대좌가 위치한 유구로, 발굴조사 초기에는 1건물지로 불렀다. 1차 보고서에서는 이 건물지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지 않았고, 이후 조사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9) 이승연(2015), 「신라말~고려시대 선종사원의 배치변화에 관한 연구」, 『韓國考古學報』 96, 한국고고학회, 170쪽.

2. 생활 영역

선종사찰은 참선을 중시하는 특성상 많은 선승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생활영역이 사역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집단적 수도생활을 위해 참선과 생활에 활용되는 공간인 승당(僧堂)과 식생활관련 시설인 고원(庫院)이 발전하였다.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상당량이 바로 이 생활영역에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승당지, 고원지, 공양간, 요사채를 중심으로 출토된 도자기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승당지

승당은 승려들이 좌선, 취침, 식사를 하는 선종사원의 핵심적인 수행공간이다.¹⁰⁾ 승당에 해당하는 공간은 가-1건물지와 가-12건물지이다. 가-1건물지는 서로 대응되게 배치된 가-2·3건물지 및 가-1축대와 함께 하나의 원(院)을 이루고 있다. 층위상 3차례에 걸쳐 중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1건물지는 상당히 큰 규모이며, 사역내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V층에서 청자선해무리굽완이 출토되어 조성시기가 고려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 이 층에서는 청동여래입상(불신 높이 172.8mm)이 출토되었는데, 법의(法衣) 처리나 주름 표현, 주조기술면에서 9세기의 특징을 간직하면서도 통일신라 말기의 양식에서 변형된 모습을 지니고 있어 나말여초 또는 고려초에 해당한다는 점도 시기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1건물지에서는 고려초에 해당하는 유물 외에도 10세기 후반 이후로 편년되는 내저원각 청자해무리굽완, 중기에 주로 유행한 청자압출양각화형접시와 청자상감학문매병, 청자향완, 중국 요주요

10) 한지만, 「회암사지 고원 영역의 전각 배치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0-7, 대한건축학회, 2014, 148쪽.

11)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高達寺址 II』, 2007, 223쪽.

계 청자완, 고려백자발 등이 확인되었다.

가-1건물지에서는 특히 다양한 종류의 도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다만, 단경호, 동이, 대형호의 동체부와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6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 1~5차 발굴조사지역에 대한 보완조사가 이루어졌는데,¹²⁾ 이 조사를 통해 가-1건물지 내부의 기단토 V층에 나란히 정치된 상태로 묻혀 있었던 대형 광견호 2점이 확인되었다.¹³⁾ 이 광견호 두 점은 모두 동체 전체가 완전히 땅속에 묻혀 있었다. 첫 번째 광견호(3차 보고서 도면 16-1)는 경부와 구연부는 결실되었으며, 어깨부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줄의 음각선이 돌아가고 외면 전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다(도 3). 잔존높이가 53.6cm로, 경부와 구연부까지 남아 있었다면 80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광견호(3차 보고서 도면 17-1)는 도면으로 전체복원이 가능하다. 동체의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어깨부분에 3~4줄의 돌대가 하나의 세트를 이룬 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돌아간다(도 4). 경부는 비교적 높고 음각기법으로 여러 줄의 파도문을 시문하였다. 높이는 79.4cm로, 바로 옆에 묻혀 있던 광견호와 거의 비슷하다. 이외에 광견호의 저부로 추정되는 대형 호도 출토되었다. 한편 이 건물지에서는 대형 철제 약연(藥礮)이 출토되어 주목된다(도 12 참조).

12) 경기문화재연구원, 『高達寺址 III』, 2014, 45-49쪽.

13) 廣肩壺는 바닥에서 동체로 넓게 벌어지면서 올라오다가 어깨 부분에서 동최대경을 이루며, 어깨부분부터 좁아들면서 경부로 이어진다. 경부는 일정한 높이를 갖고 있으며 경부에서 외반된 구연과 연결된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를 가졌기 때문에 광견호라고 부르며, 고려시대 도기호 중에서는 비교적 대형에 해당한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한 것이 많으며 동체의 가운데나 위쪽에 돌대가 한 줄씩 혹은 여러 줄이 세트로 돌아가기도 한다. 경부에는 음각기법을 이용하여 파상문이나 선문이 시문되는데, 이때 파상문과 선문의 조합 관계 및 시문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고려전기에는 경부가 긴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고려 중기를 지나면서 경부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같이 확인되지만 대체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한혜선, 『고려 도기 연구』, 역락, 2019, 228-232쪽.



도 3. 광견호1, 가-1건물지(1차)
출토



도 4. 광견호2, 가-1건물지(1차)
출토

2) 고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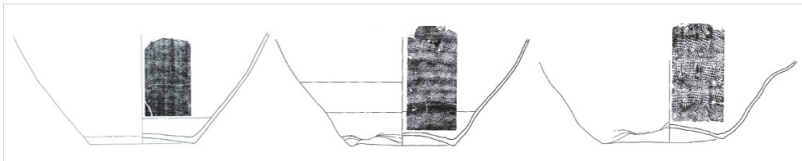
고원은 승려들의 식사, 공양, 조리 또는 관련된 부속시설로 구성된 공간이다.¹⁴⁾ 고달사지에서는 건물의 위치와 크기, 건물지 내의 출토유물의 종류와 상태 등에 의거하여 가-3건물지를 고원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바로 인접해 있는 가-4건물지도 비슷한 기능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고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가-3건물지는 1차 조사 당시 7건물지로 불렸던 곳으로, 일부 수혈에서 대형 도기호의 저부가 매납된 채 조사되었다(도 5).¹⁵⁾ 초석 사이에 동서 2열로 수혈이 있었으며, 일부 수혈 안에 대형 도기호의 저부가 매납되었다. 건물지 서쪽 부분에 아궁이 시설이 남아 있었다. 도기는 대형 호의 저부편, 경부편 등이 있으며, 어깨부분까지 복원된 호를 통해 적어도 높이가 60cm

14) 김선, 「남원 실상사의 고원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297쪽 ; 한지만, 앞의 논문, 2014, 146쪽. 한지만의 연구에 따르면 송원대 및 일본의 중세 선종사원에서는 ‘고원’으로 지칭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방의 기능에 한정하여 淨廚, 庖廚, 香積廚, 香積殿 등으로도 불렀다고 한다.

15)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단연구원, 『高達寺址 I』, 2002, 53쪽.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는 발, 접시가 주를 이루며 음각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한 매병 뚜껑과 매병, 잔탁, 통형잔 등이 있다.



도 5. 도기호 저부, 가-3건물지 출토

가-3건물지와 인접해 있는 가-4건물지는 구들 및 수조가 놓인 실, 물품을 보관하는 광 등 각기 다른 용도로 구성된 생활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청자접시, 발을 비롯해 도기호의 구연부, 동체, 저부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고려백자의 경우 IV층에서 화형접시편이 출토되었다. 도기는 경부없이 구연이 둥글게 말린 형태의 대호의 구연부편이 확인되었다.¹⁶⁾ 이러한 형태의 대호는 고려시대 다른 유적에서 저장용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 용도를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외에 전 부분에 사격자문이 장식된 대반, 참외형 매병, 동이 등이 출토되었다.

3) 추정 묘사채

묘사(寮舍)란 본래 열가지 소임을 맡은 승려들이 머무는 장소로 구들과 아궁이의 유무, 생활과 관련한 유물이 출토되느냐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고달사지에서는 가-5·6·8·9건물지, 나-5건물지에 해당한다.

가-5·6·8·9건물지는 모두 가-3건물지 후면에 위치한다. 가-5건물지는 2

16) 대호는 편평한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와 동체 중간 혹은 어깨부분에서 동최대경을 이루고 다시 좁아들어 경부 없이 곧바로 구연과 연결되는 형태의 호이다. 구연을 안에서 밖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연 단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 한혜선, 앞의 책, 2019, 233쪽.

회에 걸쳐 중수되었다. 청자는 해무리굽완부터 중기의 압출양각접시와 받, 잔과 같이 다양하다. 특히 고려백자 해무리굽완이 다수 출토되어 주목된다. 건요계 흑유완, 요주요계 청자, 경덕진계 청백자 등 중국자기도 여러 점 확인되었다. 도기도 다수 출토되었는데, 구연이 경부없이 구연이 등글게 말린 대형 대호가 거의 완형으로 확인되었다(도 6). 또한 초석 옆에 매병형호를 묻고 그 위에 납작한 돌을 덮어서 매납한 진단구(鎭壇具)가 출토되었다(도 7, 8).¹⁷⁾ 이러한 사례는 삼천사지¹⁸⁾, 완도 범화사지¹⁹⁾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 6. 대호, 가-5건물지 출토

-
- 17) 진단구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기단토 혹은 적심 근처에 의례적으로 묻는 것으로, 주로 도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기에 걸쳐 각종 건물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김성태, 「古代建物址 地鎭·鎭壇具의 檢討」, 『영남문화재연구』 18,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19-33쪽; 최은아, 「경주지역 건물지의 鎭壇具에 관한 고찰」, 『문물연구』 11, 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재단, 2007, 37-71쪽; 오셋별, 「統一新羅~朝鮮時代 地鎭具의 變遷과 地鎭儀禮 研究-建物址 地鎭儀禮를 中心으로」, 용인대학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등 참조.
- 18)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1, 234쪽.
- 19) 文化財研究所, 『莞島 法華寺址』, 1992, 80쪽.



도 7. 가-5건물지 진단구 매납 모습



도 8. 매병형호,
가-5건물지 출토

가-6건물지는 가-7건물지 남쪽에 위치하며, 가-4건물지 폐기 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려백자 해무리굽완을 비롯해 음각기법으로 앵무문을 장식한 발, 화형접시가 출토되었다. 중국자기로는 경덕진계 청백자, 건요계 흑유잔 등이 있다.

가-8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많지 않다. 다른 건물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청자접시, 발 등이 있으며, 잔탁편 일부와 경덕진계 청백자가 출토되었다. 도기는 대형 광견호의 구연부편과 대형 호의 저부편, 병 등이 확인되었다.

가-9건물지 III층에서는 고려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와 더불어 분청사기가 출토되었고 IV층 출토품 역시 고려 중기 청자가 주를 이룬다. 같은 층에서 경덕진 청백자와 중국 남방계 백자 등도 함께 발견되었다. 도기는 호 구연부편이 확인되었다.

4) 공양간

고달사 영역 내 남서쪽 하단부에 위치한 가-17건물지가 공양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에서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물지 전면에는 박석으로 포장한 부분과 방형 아귀구 1기가 남아 있다. 이 건물지에서는 청자발, 접시, 잔, 잔뚜경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로 중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도기는 호 저부편, 반구병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아귀구에서 북쪽으로 약 6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진단구가 출토되었다. 진단구는 고려백자발 4점, 청자발 1점, 동체가 세장한 형태의 도기호로 구성 되어 있다. 고려백자발의 경우 내화도빚음을 받쳐 구운 것으로 중기 이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3. 기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물지의 위치와 규모, 출토유물을 통해 용도가 확인된 건물지 외에 고달사지에서는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도자가 출토된 건물지도 있다. 주로 6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곳으로, 사역의 남쪽에 해당한다. 이곳은 앞서 이루어진 5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가 쌓여 있던 지역으로, 크게 3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말려초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된 지점과 고려시대 중기에 경영된 건물지가 위치한 지점, 후대 유구로 인해 파괴되거나 복토되어 별다른 유구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지점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 중기에 활용된 건물지인 가-13~16건물지에서 다수의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강진 용운리 10-II층과 유사하여 12세기 중반~13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이 건물지들에서 출토된 청자는 발, 접시 외에 여러 유형의 잔탁이 있는데, 특히 가-15건물지에서는 잔탁만 4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 건물지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가-13~16건물지에서는 기단부에서 대형 도기호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매납된 상태로 확인되어 주목을 요한다. 가-14건물지에서는 기단토 아래에서

2점의 도기호가 출토되었다. 또한 가-15건물지는 두차례에 걸쳐 중복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하부에 해당하는 IV층 기단토에 대형 광견호가 완전히 묻힌 채 출토되었다. 이 광견호는 구연부만 결실된 상태로 경부와 동체 전체가 비교적 잘 남아 있었고, 발굴당시 경부와 동체부가 분리된 채 출토되었다. 경부는 높은 편이며 여기에는 여러 줄의 파도문이 돌아간다. 동체 외면의 어깨부분에는 4-5줄의 돌대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것이 7-8cm의 간격을 두고 두 세트가 장식되어 있다(도 9). 외면 전체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여 모양을 잡았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경부까지 남아 있는 높이는 71.6cm에 달한다.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체의 두께는 매우 얇은 편이다.



도 9. 광견호,
가-15건물지 출토



도 10. 이중구연호,
가-16건물지 출토

가-16건물지에서도 가-14건물지와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 도기호의 저부편 2점이 나란히 땅에 묻힌 채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한 점은 경부 부분에 장식을 덧댄 이중구연호²⁰⁾가 거의 완형으로 출토되어 주목된다(도

20) 이러한 형태의 호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단 二重口緣壺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구연이 이중이 아니라 경부에 별도의 장식을 덧댄 형태이므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단 넓은 의미에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구연이 두 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중구연호라고 칭하였다. 한혜선, 앞의 책, 2019, 246쪽.

10). 이중구연호는 현재까지의 출토사례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달사지 가-16건물지에서 이중구연호와 공반된 자기가 12세기~13세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다른 유적에서도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유물들과 공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고려 중기를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건물지들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종류와 상황을 보았을 때 수행이나 예불공간보다는 승당이나 요사채 같은 승려들의 생활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Ⅲ. 고달사의 도자기 소비양상

1. 자기의 소비양상과 조달

고달사지에 출토된 자기는 다른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대체로 유사하다. 사찰에서 확인되는 자기는 일정정도 차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고려중기의 경우 강진·부안으로 대표되는 소량의 고급자기에 사찰 인근에서 조달한 다량의 조질 자기가 조합된다는 점, 여기에 소량이지만 중국자기가 섞여 있다는 사실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려에서 자기를 생산하게 된 것은 9세기 당으로부터 선종이 들어오면서 유입된 차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²¹⁾ 차맛을 향유하기 위해 중국산 청자와 백자 다완을 사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10세기 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려에서 다완을 직접 생산하였다. 따라서 대표적인 선원인 고달사지에서 자기로 된 다도구가 다수 출토되는 현상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21) 김종일·권오영·장남원·한혜선, 『토기와 도자기』, 들녘, 2022, 186-190쪽.

다도구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 수량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완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역 전체에서 고르게 출토되는 청자해무리굽완과 백자해무리굽완의 존재가 사찰에서 차가 얼마나 많이 음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다종다양한 형태의 발, 잔, 잔탁도 다구의 일종으로 빼놓을 수 없다.²²⁾

자기해무리굽완은 굽접지면의 폭이 넓은 형태가 마치 해 주위의 띠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²³⁾ 이 완은 고려전기 자기를 대표하는 표지 유물로, 그릇의 측면이 사선으로 뺏어나간 형태여서 마치 샷갓을 얹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고려전기 차도구로 사용된 해무리굽완도 전국 대부분의 사찰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었다.²⁴⁾ 당시 사찰은 당시 교통요지에도 다수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정기 의례가 행해지면서 많은 양의 물자가 유통되었던 지역문화의 거점지였다.²⁵⁾ 또한 중앙에서 유행하는 고급문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공간으로, 차문화와 차도구가 그 지역 지배층에게도 전달되는 창구역할을 담당했다.²⁶⁾

고달사지 출토 자기 중 해무리굽완과 함께 음다문화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잔탁을 꼽을 수 있다. 잔탁은 굽이 있는 접시모양으로 잔을 받치는데 사용되었으며, 잔과 함께 한 벌을 이룰 때에는 탁잔(托盞)이라고 했다.²⁷⁾ 여러 재질로 제작되었지만 자기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며, 고려

22) 장남원, 「소비유적 출토 도자(陶器)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다례(茶禮)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2011, 415쪽.

23) 여기에서 자기해무리굽완은 청자와 백자로 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24) 이종민, 앞의 논문, 2004, 110쪽.

25) 한기문, 「고려시대 寺院의 정기 行事와 交易場」, 『大邱史學』 100, 大邱史學會, 2010, 159-160쪽.

26) 한혜선, 「고려전기 분묘 출토 자기해무리굽완의 확산과 소비양태」,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 206쪽.

27) 이운진, 「高麗時代 瓷器盞托 研究」, 『美術史學研究』 273, 한국미술사학회, 2012, 35쪽.

시대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특히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사찰에서는 다탕(茶湯)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주지가 참석하는 경우 잔탁이 사용되었다.²⁸⁾

잔탁은 앞에서 설명한 가-15건물지에서 출토된 4점뿐만 아니라 가-2건물지, 가-14건물지, 가-매립유구 등에서 확인되었다(도 11). 그리고 잔탁 위에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형잔들도 여러 점 출토되었다. 잔탁은 형태에 따라 잔대가 있는 것과 잔대 부분이 뚫려 있는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고달사지에서는 주로 잔대가 있는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중국 북송대 분묘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이렇게 잔대가 있는 유형을 음주용으로 파악하였으나²⁹⁾ 고려의 경우 사찰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어서 음다용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사찰에서는 음주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잔탁의 문양과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13세기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³⁰⁾

28) 이운진, 위의 논문, 2012, 38쪽; 자각종색선사 저·최범혜 역주,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1 참고. 청규에서는 ‘盞囊’라는 명칭이 茶湯과 관련해서 계속 등장한다.

29) 차이메이펀, 「송대 중국의 반잔 풍조」, 『고려도경 숨은그림찾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133쪽.

30) 김운정, 「여주 고달사지 출토자기 고찰」, 『高達寺址 III』,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4, 212쪽.



도 11. 청자잔탁, 가-15건물지 출토

고달사에서 행해진 차문화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자기는 아니지만 길이가 1m에 육박하는 대형 철제 약연을 꼽을 수 있다(도 12).³¹⁾ 약연은 다연(茶碾)이라고도 하며, 철제, 목제, 석제, 도자제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다. 고달사에서 출토된 약연은 주판알 모양의 약환(藥丸), 약선(藥船), 약선대(藥船臺)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형에 가깝다. 보고자는 약연이라고 하였지만 차잎을 가는 다연으로 활용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확인되는 다른 다도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주용도는 다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선승들이 대규모로 거주하여 사용되는 차의 양도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다량의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대형 다연이 필요한 물품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12. 철제 다연, 가-1건물지 출토

한편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중기에 해당하는 청자는 품질에 따라 전남 강진 일대 청자요지와 전북 부안 청자요지에서 제작된 고급품이 소량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청자들은 대부분 인근에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청자들은 규석받침을 받쳐 구운 것들로, 장식이 화려한 잔탁이나

31) 경기문화재단, 『고고학이 발굴한 경기도』, 2019, 272-275쪽.

양각연판문발 등 일부 기종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고려중기 자기 유통과정 이 품질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구성하는 규칙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³²⁾ 즉 명확하게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양질과 조질을 구성하는데 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모종의 규칙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단일 사찰유적에서 출토되는 청자를 전수조사하여 통계를 낸다면 알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여주에서 지표조사로 알려진 청자요지는 15기에 달한다. 강천면 도전리 2기, 강천면 부평리 2기, 북내면 중암리 6기, 북내면 운촌리 1기, 북내면 장암리 3기, 북내면 상교리 1기 등이다.³³⁾ 또한 고달사 인근에 발굴조사된 안금리 청자요지와 부평리 청자요지가 자리하고 있다.³⁴⁾ 한얼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부평리 청자요지는 경기도박물관에서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청자요지와는 다른 유적으로, 발굴조사된 부평리 청자요지는 11세기 말~12세기 전반에 요업이 이루어진 가마이다. 여기에서 출토된 발, 접시, 통형잔, 잔 뚜껑 등은 고달사지 출토품과 친연성이 높다. 안금리 청자요지는 12세기 중엽 이후에 해당되는데 발과 접시를 비롯해, 유개통형잔 등이 출토되었다. 통형잔과 뚜껑은 고달사지에서도 전 사역에서 고르게 확인되는 기종이다. 발과 접시는 일부 압출양각기법을 활용하여 모란당초문과 연당초문을 장식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11~13세기에 해당하는 층에서 확인된 굽을 깎지 않거나 대충 깎은 발과 접시, 소형접시는 대부분 모래가 섞인 내화토빔음을 받쳐서 포개구이한 것들로 안금리와 부평리를 포함하여 인근 지방가마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⁵⁾

32) 이종민, 앞의 논문, 2004, 110쪽.

33) 경기도박물관, 『驪州地域의 陶磁遺蹟』, 2004 ; 백종오·조주연, 「高麗 陶窯址의 分布와 流通에 관한 試論의 檢討-驪州地域을 중심으로」, 『京畿史學』 7, 경기사학회, 2003, 6쪽.

34) 중앙문화재연구원, 『驪州 安金里遺蹟』, 2007 ; 한얼문화재연구원, 『驪州 釜坪里遺蹟』, 2011.

고달사지 출토 자기의 특징 중 하나로 고려백자의 비중이 다른 사찰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⁶⁾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근에 고려백자 가마터인 중암리요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11세기에 해당하는 조질의 고려백자해무리굽완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는 북내면 중암리 일대 백자요지에서 주력으로 생산한 품목이었다.³⁷⁾ 원향사지의 양상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찰 인근에 백자요지가 위치한 점이 실제 사용한 자기의 상당부분을 주변 생산품 가운데 조달했음을 알 수 있다. 11세기 이후에는 경기도 일원에서 고려백자가 지방자기의 하나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한편 중국자기도 39점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보고서를 기준으로 계통과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고달사지 출토 중국자기의 종류와 수량

	고달사지 I	고달사지 II	고달사지 III	고달사지 IV	합계
월주요계			청자옥환저완1(가-11건물지 VI-1층)		1
형요계		백자옥벽저완1(지표)	백자옥벽저완1(가-11건물지 VI-1층)		2
정요계	백자완1	백자회화초화문완1(지표), 백자접시1(가-5건물지IV층), 백자접시1(가-7건물지III층), 백자접시1(가-4축대III층)			5
요주요계		청자인회초화문완1(가-5건물지IV층), 청자인화모란당초문	청자음각초화문완1(가-12건물지III		4

35) 김윤정, 앞의 논문, 2014, 207쪽.

36) 이종민, 앞의 논문, 2004, 102쪽.

37) 백종오·조주연, 앞의 논문, 2003, 43쪽.

38) 이종민, 앞의 논문, 2004, 111쪽.

		완1(나-13건물지)	층), 청자인화초염 문완1(가-15건물 지 Ⅲ층)		
경덕 진계		청백자획화초화문동체편1 (지표), 청백자획화초화문완 1(지표), 청백자획화초화문접 시1(가-2건물지Ⅲ층), 청백자 인화연지어문접시1(가-2건물 지Ⅲ층), 청백자화형접시(가 -3건물지Ⅲ층), 청백자인화연 지어문접시1(가-4건물지 Ⅲ 층), 청백자획화초화문완1(가 -4건물지 Ⅳ층), 청백자획화초 화문발1(가-5건물지Ⅲ층), 청 백자화형접시1(가-5건물지Ⅲ 층), 청백자접시1(가-5건물지 Ⅳ층), 청백자화형접시1(가-5 건물지Ⅳ층), 청백자호1(가-5 건물지Ⅳ층), 청백자접시1(가 -6건물지Ⅲ층), 청백자인화초 화문접시1(가-7건물지Ⅳ층), 청백자‘上院’명접시(가-7건물 지Ⅳ층), 청백자획화초화문완 1(가-8건물지Ⅲ층), 청백자화 형접시(가-9건물지Ⅳ층)	청백자화형접시1 (가-13건물지 Ⅳ 층), 청백자음각선 문절요접시1(가- 매립유구 Ⅲ층)	청백자화 형 접 시 1 (가-5담장 지 Ⅲ층), 청백자획 화초화문 완1(가-목 단가마 V 층)	21
건요 계	흑 유 자 완1	흑유자완1(가-5건물지Ⅳ층), 흑유자완1(가-6건물지Ⅲ층), 흑유자완1(가-7건물지Ⅲ층)			3
남방		백자저부편1(지표), 백자완편 1(가-9건물지Ⅳ층), 백자발1 (탐색트렌치1-①-③ Ⅳ-1층)			3
합계	2	29	6	2	39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중국 자기는 주로 건물지 Ⅲ층과 Ⅳ층에서 확인되며,

대부분 12세기부터 13세기 경에 제작된 송대 자기이다. 출토된 중국자기는 월주요계 청자, 형요 및 정요계 백자, 요주요계 청자, 경덕진계 청백자, 건요계 흑유자, 일부 남방 백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⁹⁾ 이들 자기는 송대에 해외에 수출되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요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⁴⁰⁾

중국자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0세기경에 해당하는 것은 가-11건물지 IV층에서 출토된 월주요계 청자옥환저완과 형요계백자옥벽저완이다. 형요계백자옥벽저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요주요계 청자는 고달사지에서 4점이 보고되었다. 같은 시기 대표적인 수출 도자기였던 정요계 백자, 경덕진계 청백자 등과 공반되지만 수량면에서 적기도 하고 정확한 기형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파편으로만 출토되고 있다. 주로 도범을 활용한 인화기법이 주를 이루며,⁴¹⁾ 대체로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⁴²⁾ 건요계 흑유자완은 3점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가-6건물지에서 출토된 흑유자완은 거의 완형으로 남아 있다. 흑유자완은 당시 매우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어서 고려뿐만 아니라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에서 다완으로 각광받았다. 고달사지 출토 중국자기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경덕진계청백자로, 모두 21점에 달한다. 기종은 접시, 완, 발이 있으며 대부분이 접시이다. 가-13건물지 IV층에서 출토된 경덕진계청백자화형접시는 가-3건물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으며, 북송대인 11세기 말~12세기 전반에 해당한다.⁴³⁾

39)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19, 2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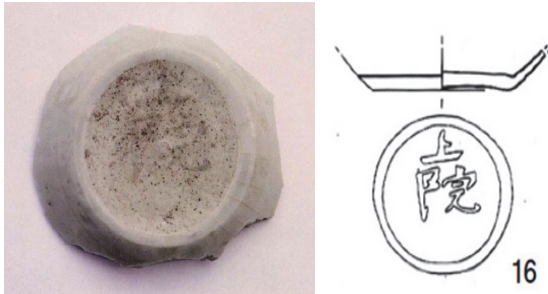
40) 임진아, 「고려유적 출토 송대자기 연구」, 『史林』 22, 수선사학회, 2004, 179-213쪽 ; 김영원, 「한반도 출토 중국 도자」, 『우리 문화 속의 中國陶磁器』, 국립대구박물관, 2004, 132-149쪽 ; 송동림, 「한반도 근해 출수 송원도자(宋元陶瓷)의 양상과 최종 수요처」, 『文物研究』 29, 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 2016, 45-66쪽.

41) 임진아, 앞의 논문, 2004, 198쪽.

42) 任眞娥,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9-51쪽.

43) 김윤정, 앞의 논문, 2014, 208쪽.

한편 가-7건물지 IV층에서 출토된 경덕진계청백자‘상원’명접시는 12세기 고달사에서 주지가 기거하던 방장(方丈)이 상원(上院)이라 하여 따로 분리되었다고 보는 중요한 근거자료 중 하나이다(도 13).⁴⁴⁾ 가-7건물지는 윗단에 배치된 가-8·9건물지로 올라가는 문지로, 가-8·9건물지는 각각 아궁이와 구들이 설치된 흔적이 남아 있어 생활에 직접 관련된 건물지로 추정된다.



도 13. 경덕진계청백자‘상원’명접시, 가-7건물지 IV층 출토

그렇다면 ‘상원’이라는 목서는 언제 표기된 것일까? 여기에는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부터 표기되어 온 경우, 고려에서 유통되는 단계에 시문했을 가능성, 마지막으로 고달사에서 사용할 때 새겨진 경우이다. 필자는 마지막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무역으로 고려에 유입된 이후 소비처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경덕진계 청백자의 상당수가 남송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무역자기의 일종으로 고려에 많이 유입되어 여러 성격의 유적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⁴⁵⁾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경덕진계 청백자의 상당수는 최근 조사결과가 알려진 남송대 침몰선 광동(廣東) 남해(南海)

44) 이승연, 앞의 논문, 2015, 189쪽.

45) 김운정, 「高麗時代 遺蹟 出土 宋代 靑白瓷의 현황과 특징」, 『아외고고학』 16, (사)한국 문화유산협회, 2013, 112쪽.

1호에 실렸던 것들과 유사하며, 이 선박에는 경덕진산 청백자뿐만 아니라 복건의 민청의요와 덕화요산 청백자도 상당량 실려 있었다.⁴⁶⁾ 이러한 발굴 결과를 참고하면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남송대 청백자의 산지를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고려와 송의 무역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⁴⁷⁾

이렇게 경덕진계 청백자를 비롯해 남송대 백자들은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 후반 사이에 유입되어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당시 생산되었던 고려백자의 품질과 연관되어 있다. 일정하게 백자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고려백자가 무르고 유약의 박리현상이 심해 수입품이던 중국백자보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지 못하여 가성비면에서 볼 때 고려백자를 대체한 품목으로써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⁴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자기는 다양한 종류와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고려시대 자기 조달과 소비양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11~13세기에 대규모 사찰과 같이 중요 소비처에서 조달한 자기는 강진과 부안이라는 최고급 생산지 제품 소량에 주변에서 제작된 다수의 청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구성된다.⁴⁹⁾ 다만 고달사지의 경우 인근에 고려백자 생산지인 여주 중암리 요지와 용인 서리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찰에 비해 고려백자의 수량이 많은 편이다.⁵⁰⁾ 여기에 당시 최고급품

46) 추이음, 「난하이 1호南海1號-귀중한 가치가 있는 한 척의 침몰선과 그 속에 숨겨진 해저의 역사」, 『중국고고학, 위대한 문명의 현장』, 역사산책, 2021, 299-300쪽.

47) 고은미, 「宋代 明州市舶司의 변천과 무역조건」, 『大東文化研究』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277-303쪽 ; 고은미, 「고려-일본과 송간의 무역사이클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89-114쪽 ; 김영제,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 183-217쪽.

48) 이종민, 「高麗 中期 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 25, 미술사연구회, 2011, 154쪽.

49) 이종민, 앞의 논문, 2004, 115-119쪽.

50) 다도구의 하나로 사용된 항(缸)을 예시로 들면 여주의 고달사지와 원향사지에서

또는 고려에서 생산된 자기를 대체하는 품목으로 인식되었던 소량의 중국자기가 더해지면서 사찰 사용 자기의 구성을 갖추었다. 이러한 자기들은 사찰에서 설행되는 각종 의식과 승려들이 참선을 할 때 음다용으로 또는 공양용으로, 그리고 기타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기 구성은 당시 사찰 출토 자기가 당대인들이 합의하는 모종의 규칙이나 규정, 선호 또는 유행, 가치에 따라 구성되고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2. 저장용 도기의 활용

고달사지에서는 건물지 내부에 대형 도기호가 일부 또는 전체가 땅 속에 묻힌 채 조사되었다. 1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1건물지, 가-3건물지, 가-13건물지, 가-14건물지, 가-16건물지와 같이 2점 이상의 도기호가 바로 인접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전체가 남아 있는 호들은 높이가 거의 80cm에 달하며, 저부쪽만 남아 있는 것들도 잔존양상으로 보아 그 높이가 적어도 50cm 이상은 충분히 넘는다. 이렇게 대형 도기호가 건물지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건물지의 성격을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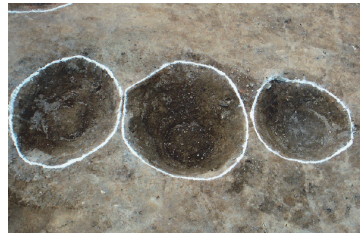
먼저 고원영역으로 추정된 가-3건물지와 가-4건물지에서 다수의 도기호가 확인되었다. 가-3건물지에서는 초석 사이에 동서 2열로 수혈이 있었으며, 일부 수혈 안에 대형 도기호의 저부가 묻혀 있었다(도 14, 15). 가-4건물지에서는 대호의 구연부편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그런데 남원 실상사, 삼척 흥전리사지, 강릉 굴산사지, 양주 회암사지, 경주 삼량사지 등에서 확인되는 고원영역은 주로 사역 중심축에서 동편에 위치하면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⁵¹⁾ 고달사의 고원 위치는 그 규칙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청자뿐만 아니라 백자항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는 사찰 인근에 백자를 생산하는 가마터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정은, 「고려시대 자기제 항(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128쪽.

사실 설립 당시부터 공간을 구획하여 조성했다면 선원의 공간구성을 규정한 규범처럼 고원이 자리할 수 있겠으나 기존 사찰을 필요에 따라 확장해 나간 선원이라면 자리한 곳의 지형적 조건과 건물을 건립하거나 확장할 때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달사지가 역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도 14. 가-3건물지 전경



도 15. 가-3건물지 수혈 세부

가-3건물지 후면에 위치한 가-5·6·8·9건물지는 승려들이 머무는 요사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가-5건물지와 가-8건물지에서 대형 항아리가 확인되었다. 특히 가-5건물지에서 출토된 대호는 거의 완형에 가깝다(도 6 참조).

한편 고달사지 6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사역 하단부에 위치한 건물지에서도 땅에 매납된 상태로 대형 도기항아리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 구역도 생활영역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 곳은 이미 이전 발굴조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⁵²⁾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유구는 가-12~16건물지와 가-매립유구로, 모두 한 구역안에 인접해 있다. 먼저 가-12건물지 I 층에서 출토된 광견호는 동체 하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가-12건물지는 특히 대형 호의 저부가 다수 확인되어 호의 사용이 많았던 건물지로 추정된다. 가-13건물지 내부 적심 인근에 각각 대형 도기호 저부 2점이 땅에 묻힌

51) 김선, 앞의 논문, 2019, 307-319쪽.

52)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07, 541쪽.

채 확인되었다. 동상부는 결실되었지만 땅에 묻혀 있던 호의 저부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도기호가 묻힌 층은 건물지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IV층이다. 가-14건물지 내부에서도 기단토를 굴광한 후 묻은 대형 도기호 2점이 나란히 출토되었다(도 16, 17).



도 16. 도기호 저부편1,
가-14건물지 출토



도 17. 도기호 저부편2,
가-14건물지 출토

가-16건물지에서도 도기호 저부편이 땅에 묻힌 채 확인되었다(도 18). 여기에서 출토된 대형 도기호 중 이중구연호는 땅에 묻힌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호가 가평 신천리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신천리유적에서 출토된 대형의 이중구연호는 땅에 묻힌 채 판관한 돌을 뚜껑으로 사용하였다.⁵³⁾ 기본적인 형태는 어깨가 넓은 광견호이고 어깨부분에 수직으로 선 전이 달려 있다. 경부와 전의 옆면에 파상문이 음각기법으로 시문되어 있고, 동체에는 돌대가 붙어 있



도 18. 가-16건물지 도기호 출토상태

53) 한백문화재연구원, 『가평 신천리유적』, 2009, 174쪽.

다. 발굴 당시 동체 전체가 땅에 묻혀 있어서 저장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창녕 말흘리 D-2호 고려시대 건물지에서도 완형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고,⁵⁴⁾ 청송 진안리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바 있다.⁵⁵⁾ 이러한 형태의 호가 근대기 용기로도 남아 있어 주목된다.⁵⁶⁾

그렇다면 이렇게 땅에 묻힌 대형 도기호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유적의 출토사례와 문헌기록을 통해서 각종 식품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원영역은 사찰에서 소용되는 저장 음식과 관련이 높다. 구체적으로 고려시대 선종사찰 승단(僧團)의 생활규범을 밝힌 청규에 따르면, 사찰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직책인 전좌는 장초(醬醋), 엄장(淹藏), 수채(收菜)와 같이 저장식품을 철저히 조달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⁵⁷⁾ 별도로 전좌를 두고 그 직책의 임무를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장식품이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의미한다.⁵⁸⁾

이와 같이 대형의 도기호를 땅에 묻어서 사용한 예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사찰유적과 건물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용인 마북리사지 1호 유구에서 는 대형 광견호를 반 이상 땅에 묻어서 사용했던 모습이 그대로 출토되었다.⁵⁹⁾ 이 광견호는 높이가 77cm나 되어 그 크기가 작지 않은데, 40cm 정도를

54)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昌寧 末屹里 高麗時代 建物址』, 2007, 186쪽.

55) 대경문화재연구원, 『靑松 眞安里 遺蹟』, 2008, 57쪽.

5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민속047228) 중 하나로, '이중전향아리'라고 하였다.

57) 자각종색선사 저·최백혜 역주, 『고려판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1, 166-167쪽. 장초는 장과 각종 식초류, 엄장은 채소 등을 절여서 저장하는 것, 수채는 채소를 건조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전좌는 또한 주방의 솔과 같은 각종 물건, 즉 기물관리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전해져 내려오는 혹은 당시 유행하는 방식의 기물구성을 결정하고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8) Han HyeSun, "Utilization of Earthenware Pottery for Food Storage in the Goryeo Period",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ume 24 Number 1,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1, 190쪽.

59) 한신大學校博物館, 『龍仁 麻北里 寺址』, 2003, 216쪽.

땅에 묻어 사용했다. 원주 거둔사지와⁶⁰⁾ 고창 선운사 동불암에 대한 발굴조사⁶¹⁾ 등에서 대형호가 땅에 박힌 채 출토되었다. 평택 백봉리유적에서도 대형호를 완전히 땅에 묻어 사용했던 상태로 확인되었다(도 19, 20).⁶²⁾



도 19. 대호 매납 모습, 평택 백봉리유적 출토



도 20. 대호, 평택 백봉리유적 출토

또한 곡물 저장용으로 도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도 확인되어 흥미롭다. 평택 동창리에서는 구룡 일대에서 9세기 후반~고려 중기까지 사용된 곡물 저장용 수혈이 50기 이상 조사되었다.⁶³⁾ 수혈에 대형호를 묻고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곡물을 담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곡식이나 식품의 보관을 위해서 대형의 저장용 도기호가 활용되었던 사실은 『고려도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⁶⁴⁾ 이 기록에 따르면 도기는 제철과일을 장기간 보관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냉장고가 따로 없던 시절에 대형 도기호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던 것이다.

60) 翰林大學校博物館, 『居頓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0, 170쪽.

61) 扶餘文化財研究所, 『禪雲寺東佛庵 발굴 및 실측조사 보고서』, 1995, 150쪽.

62) 基湖문화재연구원, 『平澤 栢峯里 遺蹟』, 2010, 81쪽.

63) 三江文化財研究院, 『平澤 東倉里遺蹟』, 2011, 59-61쪽.

64) 『高麗圖經』卷23, 雜俗2 土産, “其果實 栗大如桃 甘美可愛 舊記謂 夏月亦有之 嘗問其故 乃盛以陶器埋土中 故經歲不損.”

이렇게 대형호의 일부 혹은 전체를 땅에 묻어서 저장용으로 사용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호의 형태적인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형호의 대부분이 저부가 좁은 반면에 어깨가 상당히 넓은 형태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조장치가 없다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즉 옆으로 넘어졌을 경우 손상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기형상의 약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릇의 일부 혹은 전체를 땅에 묻어 사용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형태상의 약점을 보완하고 파손의 위험을 줄이면서 저장용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체의 일부 혹은 전체를 땅에 묻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했던 것이다.⁶⁵⁾

IV. 맺음말

지금까지 8차에 걸친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도자기에 대해서 소비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고달사지 출토 도자기는 다양한 종류와 품질을 갖추고 있어 고려시대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도자기의 조달과 소비양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1세기~13세기에 대규모 사찰과 같이 중요 소비처에서 조달한 자기는 강진과 부안이라는 최고급 생산지 제품은 소량이며, 나머지는 주변에서 제작된 조질의 청자와 백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당시 최고급품 또는 고려에서 생산된 자기를 대체하는 품목으로 인식되었던 소량의 중국자기가 더해지면서 사찰 사용 자기의 구성을 갖추었다. 이러한 자기들은 사찰에서 설행되는 각종 의식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승려들이 참선을 할 때 음다용으로 또는 공양용으로 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65) Han HyeSun, 앞의 논문, 2021, 196쪽.

한편 승려들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식품의 저장은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많은 선승들이 기거하는 선종사찰은 주방에 해당하는 고원 영역이 중시되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고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거기에서 식품 저장용으로 활용된 대형 도기호가 다수 출토되었다. 대형 도기호의 대부분이 저부가 좁은 반면에 어깨가 상당히 넓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약점을 보완하고 저장용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기의 일부 혹은 전체를 땅에 묻어서 사용하였다.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어느 정도 건물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고, 용도면에서 도기와 자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음을 증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 김종일·권오영·장남원·한혜선, 『토기와 도자기』, 들녘, 2022.
- 경기문화재단, 『고고학이 발굴한 경기도』, 2019..
- 김영제,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
- 자각종색선사 저·최법혜 역주,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1.
- 한혜선, 『고려 도기 연구』, 역락, 2019.
- 경기도박물관, 『驪州地域의 陶磁遺蹟』, 2004.
-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高達寺址 I』, 2002.
- _____, 『高達寺址 II』, 2007.
- 경기문화재연구원, 『高達寺址 III』, 2014.
- _____, 『高達寺址 IV』, 2016.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昌寧 末屹里 高麗時代 建物址』, 2007.
- 기호문화재연구, 『平澤 栢峯里 遺蹟』, 2010.
- 대경문화재연구원, 『青松 眞安里 遺蹟』, 2008.
- 文化財研究所, 『莞島 法華寺址』, 1992.
- 扶餘文化財研究所, 『禪雲寺東佛庵 발굴 및 실측조사 보고서』, 1995.
- 三江文化財研究院, 『平澤 東倉里遺蹟』, 2011.
-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1.
- 중앙문화재연구원, 『驪州 安金里遺蹟』, 2007.
- 翰林大學校博物館, 『居頓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0.
- 한백문화재연구원, 『가평 신천리유적』, 2009.
- 한신大學校博物館, 『龍仁 麻北里 寺址』, 2003.
- 한얼문화재연구원, 『驪州 釜坪里遺蹟』, 2011.
- 고은미, 『宋代 明州市舶司의 변천과 무역조건』, 『大東文化研究』 89, 성균관대

- 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 _____, 「고려·일본과 송간의 무역사이클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 김선, 「남원 실상사의 고원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 김성태, 「古代建物址 地鎮·鎮檀具의 檢討」, 『영남문화재연구』 18,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 김영원, 「한반도 출토 중국 도자」, 『우리 문화 속의 中國陶磁器』, 국립대구박물관, 2004.
- 김용선, 「玄扈·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국중세사학회, 2006.
- 김운정, 「高麗時代 遺蹟 出土 宋代 靑白瓷의 현황과 특징」, 『야외고고학』 16, (사)한국문화유산협회, 2013.
- _____, 「여주 고달사지 출토자기 고찰」, 『高達寺址 III』,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4.
- 박정은, 「고려시대 자기제 항(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 백중오·조주연, 「高麗 陶窯址의 分布와 流通에 關한 試論의 檢討-驪州地域을 중심으로」, 『京畿史學』 7, 경기사학회, 2003.
- 송동림, 「한반도 근해 출수 송원도자(宋元陶瓷)의 양상과 최종 수요처」, 『文物研究』 29,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6.
- 오셋별, 「統一新羅-朝鮮時代 地鎮具의 變遷과 地鎮儀禮 研究-建物址 地鎮儀禮를 中心으로」, 용인대학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승연, 「신라말-고려시대 선종사원의 배치변화에 관한 연구」, 『韓國考古學報』 96, 한국고고학회, 2015.
- _____,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건축고고학적 의미」, 『고달사지 발굴 조사의 성과와 향후과제』, 여주시·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21.
- 이운진, 「高麗時代 瓷器蠡托 研究」, 『美術史學研究』 273, 한국미술사학회, 2012.
- 이종민,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 『흙으로 빛은 역사』,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4.
- _____, 「高麗 中期 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 25, 미술사연구회, 2011.
- 任眞娥,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_____, 「고려유적 출토 송대자기 연구」, 『史林』 22, 수선사학회, 2004.
- 장남원, 「소비유적 출토 도자(陶器)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다례(茶禮)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2011.
- 차이메이펀, 「송대 중국의 반잔 풍조」, 『고려도경 숨은그림찾기』, 국립문화재연구원, 2019.
- 최은아, 「경주지역 건물지의 鎮壇具에 관한 고찰」, 『문물연구』 11,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7.
- 추이융, 「난하이 1호南海1號-귀중한 가치가 있는 한 척의 침물선과 그 속에 숨겨진 해저의 역사」, 『중국고고학, 위대한 문명의 현장』, 역사산책, 2021.
- 한기문, 「고려시대 혜목산 고달사의 위상과 종풍」, 『高達寺址 II』,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 _____, 「고려시대 寺院의 정기 行事와 交易場」, 『大邱史學』 100, 大邱史學會, 2010.
- 한지만, 「회암사지 고원 영역의 전각 배치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0-7, 대한건축학회, 2014.
- 한혜선, 「고려전기 분묘 출토 자기해무리굽완의 확산과 소비양태」,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
- Han HyeSun, “Utilization of Earthenware Pottery for Food Storage in the Goryeo Period”,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ume 24 Number 1,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1.

Abstract

THE CONSUMPTION TREND OF GORYEO DYNASTY
CERAMICS EXCAVATED IN YEOJU GODALSA TEMPLE

HAN HYESUN (HAN, HYE SUN)

The Yeosu Godalsa temple was built in the 9th century and received protection of the royal court as a Buddhist cathedral managed by the nation in Goryeo Dyansty. Through eight times of excavation investigation, total sites of 28 buildings were confirmed, and numerous relics were excavated.

Especially ceramics excavated in the Godalsa temple site are diverse in types and qualities, so it is noticeable to find out procurement and consumption aspects of ceramics used in temples during Goryeo Dynasty. Regarding ceramics procured by major consumption places like large temples between the 11th and 13th century, a small quantity were made in Gangjin and Buan, which were the highest quality production areas, but low-grade celadons and white porcelains accounted for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A small quantity of Chinese ceramics, which were recognized as substitutes of the highest quality ceramics or those made in Goryeo, were added to the ceramics used in temples. These ceramics were used not only for various rituals in temples but also for teas in Zen meditation or offering to Buddha, as well as for other living items.

Meanwhile, storage of foods was an important issue in food life of

Buddhist monks. In temples of the Zen sect where many Zen monks lived, the area of Gowaon(庫院), which was a kitchen, was valued. Sites of buildings that reflect this fact were confirmed in the results of excavation investigation for the Godalsa temple site, where a number of large ceramic jars used for storage of foods were excavated. Most of the large ceramic jars have unstable shapes with narrow lower part and broad shoulders, so parts and whole ceramics were buried in the ground to compensate the shortcoming of the appearance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torage.

Especially, ceramics excavated in the Godalsa temple site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s of buildings, and proves earthenware and ceramics wer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some degree.

Key Words : Goryeo, temple, Yeosu, Godalsa Temple, ceramic, consumption